

일제는 왜 아시아 불상에 집착했을까

국박, 특별전 '동양을 수집하다' 불비상·반가사유상 등 200여점 전시



북제시대 '반가사유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중국 불교조각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힌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가 수집한 아시아 문화유산의 의미를 돌아보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택)은 10월 28일~2015년 1월 11일까지 특별전 '동양을 수집하다-일제강점기 아시아 문화유산의 수집과 전시'를 개최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인 창경궁 왕실박물관 이왕가 박물관 등이 수집한 200여 점의 유물을 선보이는 전시는 불비상, 반가사유상 등 다양한 불교유물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전시는 동아시아의 고대, 서역미술, 불교조각, 일본근대미술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불교조각'은 이왕가박물관이 소장했던 북위(北魏)시대 '불비상'과 북제시대 '반가사유상' 등 다양한 불교 유물이 전시돼 눈길을 끈다. 이왕가박물관은 1909년 창경궁에서 개관했다. 개관 이전 준비 과정에서 진열품을 수집했는데, 그때부터 중국과 일본의 문화재도 함께 구입했다. 이왕가박물관은 1911년 새로 지은 본관과 함께 명정전, 함인정 등 창경궁의 전각도 전시관으로 활용했다. 명정전에는 1916년 구입한 중국 불비상과 석굴암 모형 등을 함께 전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 이태희 학예연구사는 "당시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에 비취 불교미술을 문화 발전의 척도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 도식을 한국의 역사에 적용해 조선시대를 문화의 집체기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정치적 배경 속에 불상은 박물관의 주요 수집품으로 자리 잡았다"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북제시대(550~577)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가사유상'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중국 불교조각 가운데 대표작으로 꼽힌다. 직사각형 대좌 중앙에 배치된 반가사유상은 살이 약간 오른 얼굴과 신체를 간결하면서도 균형감 있게 표현했다. 양측에서 있는 두 그루의 나무는 윗부분에 연결되어 아치형의 광배를 만들며, 나뭇잎은 투조 기법을 활용해 묘사했다.

대좌 가장자리에는 협시보살이 서 있고, 대좌 전면에는 향로를 중심으로 사자와 여사가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동일한 유형의 상과 비교할 때, 보살의 보관, 옷주름, 사자, 향로 등의 세부 묘사가 생략된 모습을 보여 북제(550~577) 말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북위 529년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불비상도 눈길을 끈다. 불좌상을 중심으로 양측에 협시보살이 서 있고, 그 사이에는 나한상이 얇은 부조로 표현되어 있다. 얼굴과 손은 상대적으로 고부조로 표현하고, 나머지는 평평하게 표현되었다. 불상과 보살의 광배에는 음각으로 화염문을 표현했고, 광배와 광배 사이 공간에도 일부 명문을 새겨 넣었다. 이밖에도 투루판 베제클리크 석굴에서 발견된 천불도(6~7세기)와 아프가니스탄 핫다에서 출토된 불두(4세기 경) 등도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사를 아시아 문화유산의 수집과 전시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새로운 시도다. 이는 당시 문화정책의 실상을 밝히고 20세기 전반 박물관의 역사를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11월 14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한국, 일본, 구미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도 개최된다. (02)2077-900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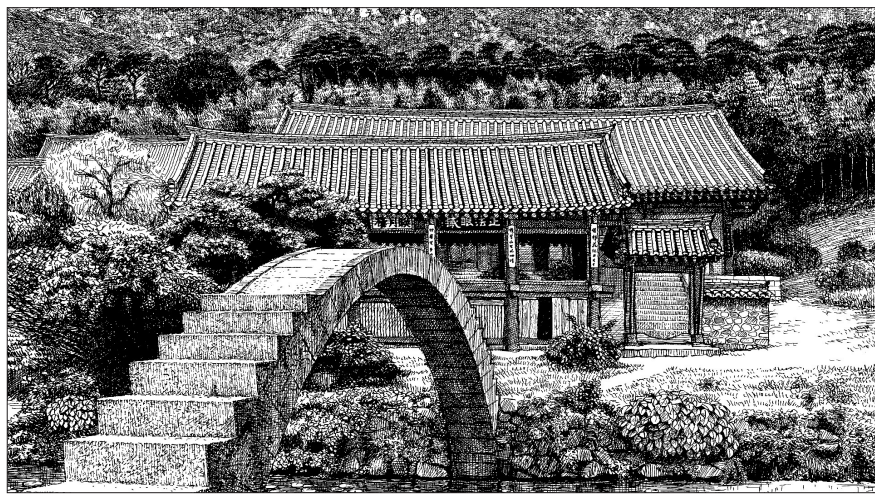


불비상도(북위 529년). 불좌상을 중심으로 양측에 협시보살이 서 있고, 그 사이에는 나한상이 얇은 부조로 표현되었다.

“사찰 참배하고 미술작품도 감상하세요”

김영택 한점갤러리 개관전 12월 24일까지 26점 전시

통도사 인근에 불교 전시공간 한점갤러리가 개원, 첫 전시로 펜화가 김영택 화백의 작품을 전시한다. '펜화에 담은 한국의 명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통도사 극락암 등 김화백의 불교건축문화재 펜화작품 26점을 12월 24일까지 선보인다.



통도사 앞 불교미술 전시공간 한점갤러리가 10월 25일 개원했다. 김영택 화백의 '통도사 극락암'.

10월 25일 개관한 한점갤러리 민경미 관장(56)은 “스님들이나 불교미술가들이 전시 전용 공간 부족으로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통도사 입구 50m 앞에 갤러리를 개관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시장은 총 80평 넓이로 전시장 40평, 관리실 20평에 보관 공간 20평 등을 갖추고 있다.

민 관장은 통도사 신도로 남편의 사업실패 후 통도사에서 기도를 하며 희망을 얻었다고 한다. '한점'의 의미는 한 점이 선을 이루고 입체를 이루어 불교문화가 일파만 파처럼 퍼져나가는 의미를 담았다고 민 관장은 설명한다. “통도사가 너무 좋아서 통도사 신도로 오랫동안 절을 다녔어요. 그

리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운 시절 절 아래서 2년 동안 살면서 통도사 극락암을 오가며 기도를 했죠. 통도사는 풍광도 좋고 절도 좋은데 문화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통도사를 오가는 많은 관광객들이 좀더 풍성한 사찰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첫 전시로는 김영택 화백의 펜화가 전시돼 눈길을 끈다. 민 관장은 평소 좋아하던 김 화백을 찾아가 전시를 의뢰했고 통도사와 인연이 깊은 김 화백은 이를 흔쾌히 허락

했다. 김영택 화백은 “2002년~2003년 통도사 갤러리 작업을 하며 1년 반 동안 숙식을 오가며 기도를 했죠. 통도사는 풍광도 좋고 절도 좋은데 문화 공간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통도사를 오가는 많은 관광객들이 좀더 풍성한 사찰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한점 갤러리는 선사화, 불상, 사진 등 다양한 불교작품을 선보여 통도사를 찾는 이들에게 불교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이다. 010-8138-3532 정혜숙 기자

‘슈퍼맨’ 송일국과 삼둥이, 템플스테이 도전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서 동자승 변신

‘마성의 삼둥이’ 대한·민국·만세가 조용하던 사찰을 들썩이게 했다. 10월 26일 전파를 탄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퍼맨’)에서 송일국과 삼둥이 대한·민국·만세가 전통사찰 템플스테이 체험에 나섰다. 험난한 삼둥이 육아로 연일 땀 뻘뻘 흘리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준 송일국은 그간의 피로로 한번에 날리듯, 환한 ‘부처미소’를 지었다.



배우 송일국 씨와 삼둥이가 강화도 전통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가져 즐거움을 선사했다.

강화 전통사찰 체험 '화계' 삼둥이 오합지졸 절 동작 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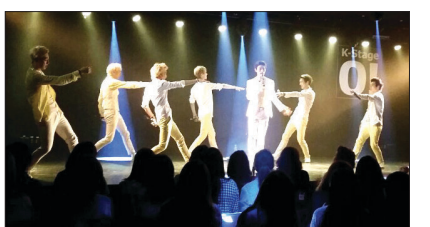
이어 기묘묘한 표정의 대한·민국·만세. 당장이라도 장난기에 시동을 걸 듯한 민국기와 만세, 그리고 국구툰을 통째로 들고 ‘원샷 발우공양’을 선보일 기세의 대한이까지, 승복을 입었어도 여전히 개구쟁이인 삼둥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신속을 들썩이게 만든 삼둥이의 템플스테이는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템플스테이가 시작되자 지도법사 스님의 손에 쥐어 있는 공포의 죽비에도 굴하지 않아

스님들을 당혹시켰다. 이어 스님의 구령에 맞춰, 동서남북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절을 하는 오합지졸 ‘구러기 동자승’들의 모습으로 스님들의 진땀을 뻘뻘했다.

그야말로 스님들을 들었다 놔다 하며 한 시도 조용할 새 없는 삼둥이의 모습에 송일국은 “저희 아이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렇지만 저는 극락에 온 거 같아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정혜숙 기자

불자아이돌 순정소년 일본서 인기몰이



불자아이돌 순정소년의 일본공연 장면.

불자아이돌 순정소년이 일본 상륙 6개월 만에 일본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함께’ ‘결혼하는 날’ 등이 실린 음반을 발매한 순정소년은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에 상주하면서 주 4회씩 꾸준히 공연을 이어왔다.

순정소년을 이끌고 있는 아이엔터테이먼트 박상현 대표는 “처음 공연장 문을 열었을 때는 관객이 8명이었다. 고인 끝에 남은 시간을 이용해 매일 도쿄 한인타운으로 나가 전단지지를 뿌리며 홍보를 했다. 이렇게 3개월이 지나자 평일 200명, 주말에는 400명 정도가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박대표는 “도쿄 신오쿠보에 위치한 공연장에는 우리 공연을 보기 위해 주말에는 입석까지 팔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관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문화진흥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대원문재현 선사님의 68번째 저서 출간!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6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禪門驗頌), 전 30권중 26권 출간! 고산, 조산, 남원, 동안선사 등의 공안이 실려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 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바로보인 유마경

모든 이치를 통달하여 반재에 자유자재했던 유마거사의, 부처님 당대를 휩쓸었던 활구법문이다. 읽는 것만으로도 반재가 트인다는 유마경, 대원문재현 선사님이 유마거사의 의중을 속속들이 드러낸 번역과 <대원선사 토기뿔>로 이 시대의 최상승법을 제창하였다.

바른 불자가 됩시다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잡이!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 031-534-3373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상보에 귀의하옵고, 안녕하십니까? 저희 근우테크는 현재 동종업계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전문 농산업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근우테크의 제품 중 사찰에 꼭 필요한 전통 운반차를 안내드립니다. 제수, 공양, 연등 등 운반과 설치에 꼭 필요한 제품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전통 운반차! 이오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평지는 물론 경사진 길에서도 차체의 기울기 조절을 통해 200kg까지 거뜬하게 운반됩니다.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사전에 운전만을 간단합니다. 10분의 연습 후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자브레이크 장치로 사고위험이 없습니다.
3. 저렴한 유지비! 한달 휴대전화 충전 요금이면 충분합니다.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연등 설치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무거운 물건 등을 차량에 상·하차 시 유용합니다.
5. 소음 걱정 끝~! 수명이 길고 힘이 좋은 99.9% 연반 배터리를 사용, 고요한 사찰 환경에 적합합니다.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4630-7903,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로 82-6(검단동 837-160번지) www.kw-tec.co.kr